

목포-신안 어민들 안좌면 갯벌 ‘낙지 전쟁’

신안군 관리수면 지정 통제

목포 어민 “생업 큰 타격”

수백명씩 집결 각각 집회

신안과 목포 어민들의 낙지 어장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

목포와 영암 어민 300여 명은 지난 20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안좌면 낙지어장에서 예전처럼 조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신안 어민 800여명도 같은 시각 전남도청 앞에서 “신안 어민들이 정상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리수면을 확대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목포와 신안 어민들의 낙지 전쟁은 해양수산부의 수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신안군이 낙지 목장을 만들겠다고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수자원조성사업 대상 사업자로 선정, 전남도에서 안좌면 일대 2631ha를 관리수면으로 확대, 지정 받은 뒤 낙지 목장을 조성하면서 남획을 막기 위해 신안군 어민들만 낙지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신안군 안좌면 일대 4개(안창·반월·구대·우목) 어촌계 어민들만 1226ha



낙지잡이 하는 어민.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서 허가를 받아 낙지 잡이를 해오고 있었다는 게 신안군 설명이다.

목포 어민들은 발끈했다. 안좌면 일대에서 수십 년간 낙지를 잡아온 만큼 별다른 협의도 없이 신안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생업을 해온 어민들을 무

시한 행태라는 것이다.

김동국 목포낙지연승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낙지를 잡아온 목포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수면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낙지 어획량 감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목포 어민들 사이에서는 “금어기도 잘 지켜왔다. 신안의 무허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고갈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안 어민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허가도 없이 낙지 잡이를 해왔으면서 관행 어업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있다. 김동국 신안군 어업인연합회장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낙지가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관리수면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며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목포 어민들의 어구를 사용한 낙지 잡이를 꼬집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장관리법에 는 낙지는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목포 어민들은 어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도 터져나온다.

전남도는 신안군에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해준 건 맞지만 목포 어민들 주장도 아말차게 흘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 고민중이다. 양측은 피해보상과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낙지 갈등이 어떻게 풀릴 지 주목된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불갑산 단풍. 영광군이 단풍나무 숲을 조성, 관광객을 유치기로 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3대 명산에 명품 단풍길 조성

영광군이 단풍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불갑·태정·장암산 등 지역 3대 명산을 단풍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단풍나무 심기에 들어가면서다.

잎이 작고 얇아서 더욱 붉게 물드는, 애기 손바닥만큼 앙증맞은 ‘애기 단풍’으로 단풍나무 숲을 만든다는 게 영광군 구상이다.

불갑산에는 저수지~구수재 일대 2.5km 구간에 500그루를 심고 태정산과 장암산에도 각각 500그루씩 심어 가을이 되면 오색 단풍빛으로 물든 풍광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내도를 정비하고 망원경, 정자, 등 의자, 간이 테이블 등도 73개를 새로 설치했다. 지역민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도심에서 가까운 숲길 산책을 즐기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광군 관계자는 “3단풍나무로 명품길을 조성하면 지역민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유치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신안군 안좌면 농민들이 생강 재배지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 기술 등을 얘기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생강 특화작목 육성 꺾걸음

안좌면에서 시범재배 보고회

신안이 생강 재배면적을 넓히는 등 생강을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안좌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생강 확대재배 시범사업 평가보고회’를 갖고 생강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생강 확대재배 시범사업은 신안군이 안좌·자은면 일대 11ha를 생강 재배지로 조성해 지역 특화 작목으로 키워내기

위해 추진했다.

보고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생강을 재배하기 위해 생강 발아율을 높였고 수확에서도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됐다.

신안군은 생강 재배로 4억원의 농가 소득이 예상되면서 마늘·양파를 대신해 생강을 재배한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생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현장 재배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함평군 내년 예산 3219억

올보다 4.5% 늘려 의회 제출

함평읍 석성리에 해수찜치유센터가 세워지고 함평읍에 주민들을 위한 실내수영장이 들어선다.

함평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079억원보다 4.5% 증가한 3219억원으로, 일반회계 3055억원, 특별회계 164억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함평 해수찜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38억원을 편성했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 22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예산 11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함평읍에 실내수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책정하는 한편, 용천사리 관광개발사업 13억원, 함평축산특화산업지구 지정 용역비 3억원 등도 편성에 제출했다.

군은 마을안길, 농로정비, 소득작목 육성 등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160억원을 반영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무안군 태양광시설 석달만에 또 거리제한

기준 완화로 신청 폭주하자

산자부 가이드라인 반영

무분별 개발 방지 조례 제정

무안군이 농촌과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태양광발전용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청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마련한 조치다.

무안군이 지난 2013년 전남 22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거 뒤들이거나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공포된다.

조례안은 농지와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호 이상의 마을과 2차선 이상 포장 도로에서 100m 이내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무안군이 지난 8월 ‘10호 이상 마을에서는 500m 이내, 2차선 이상 포장 도로의 경우 1000m 이내’에는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아예 없앴다가 3개월만에 새로 마련한 방안이다.

무안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준을 폐지한 뒤 불과 3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태양광발전 신청이 이뤄지는 등 폭주했다. 기준이 폐지되기 전 신청 건수는 73건에 불과했다는 게 무안군 설명이다.

마을 가까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했고 쉽게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땅값은 급증했다.

무안군이 관련 기준을 새로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기로 한 것은 이같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무안군 안팎의 설명이다. 새 조례안도 정부가 지난 3월 산업자원부 명의로 전국에 보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무안군 입장이다.

하지만 무안군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충분한 검토나 조율 없이 정책을 추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추진하던 정책을 되돌리는데 따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안군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이후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